



주제발표  
논문

■ 전요섭(성결대학교)

- 효과적 죽음상담을 위한 죽음 이해

■ 강경미(그리스도대학교)

- 안락사의 생명윤리학적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





## 효과적 죽음상담을 위한 죽음 이해

전 요 섭\*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효과적 죽음상담을 위한 죽음의 성경적, 신학적 이해를 다루었다.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발생되었으며, 이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이며 궁극적이고 가장 강력하고도 위협적이며 고통스러운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에 저항하고, 여러 방법으로 이 공포를 피해보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기독교상담의 입장에서는 내담자에게 죽음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며,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시켜 죽음불안을 제거하고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삶의 바른 태도이다.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논의는 조직신학에서 종말론의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종말론은 미래에 될 일들, 심판, 보상, 천국, 지옥 등을 다루며, 그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을 강조한다.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죽음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연구는 기독교상담학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죽음 연구의 필요성, 죽음의 정의와 개념, 성경에 나타난 비유를 통한 죽음이해, 죽음의 기원, 죽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 죽음의 기독교상담적 이해(목회현장에서의 죽음, 죽음불안, 죽음상담) 등을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상담에서는 죽음 자체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내담자에게 사후 세계,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함으로써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상담자 자신이 사후에 대한 확신과 죽음에 대한 담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고, 죽음은 살아있을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이며, 삶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서 죽음을 미리 생각하도록 해야 함을 밝혔다.

**중심단어** : 죽음과 죽어가는 것, 죽음상담, 죽음불안, 기독교상담, 죽음목회

• 논문 투고일: 2009년 3월 28일

• 논문 수정일: 2009년 4월 24일

• 게재 확정일: 2009년 5월 14일

\* 성결대학교

## I. 여는 글

인간은 왜 죽는가? 죽음 후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인류 역사를 통해 볼 때 끊임없이 고심해 온 생의 근본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이다.<sup>1)</sup>

현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의학과 약학을 포함한 과학의 발달로 생명연장의 숙원을 상당부분 이룩하였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사실상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의식 또는 무의식 속에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이것을 해결해 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죽음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이고 궁극적이며 가장 강력하고도 위협적인 존재이다.<sup>2)</sup> 인간은 죽음에 저항하고, 여러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려고 노력하지만 죽음은 항상 인간 곁에 있어 왔고, 인간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sup>3)</sup>

전도서 3장 1-2절에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라고 했듯이 소정의 삶을 마친 후에 인간이 죽게 되는 것은 자연법칙이며,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이다(히 9:27). 그러므로 죽음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부질없는 것이며,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하여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고 소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삶의 바른 태도이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근래 잘 사는 것(well-being)과 아울러 잘 죽는 것(well-dying)으로 삶을 완성시키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

신, 구약성경에 죽음을 언급한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죽음의 교과서가 아니므로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기란

1) Allen F. Page, *Life after Death: What the Bible Says* (Nashville: Abingdon, 1987), 15.

2) J. Kerby Anderson, *Life, Death and Beyond* (Grand Rapids: Zondervan, 1980), 11.

3) Elisabeth Kubler-Ross, *Death: The Final Stage of Growth* (New York: A Touchstone Book, 1975), 1.

단순한 일이 아니다. 또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더라도 죽음 개념 자체의 모호성과 신비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신학적 논의는 성서신학과 조직신학의 종말론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종말론은 미래에 될 일, 심판, 보상, 천국, 지옥 등을 다루며, 그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이다.<sup>4)</sup> 물론 죽음은 종말론에서 다루는 것이 합당하지만 이는 신학 전반적인 분야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이다. 특히 기독교상담학적으로 죽음을 이해하고 이에 대하여 정립하는 것은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아울러 죽음을 분명히 이해할수록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죽음의 정의와 개념, 죽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 성경에 나타난 비유를 통한 죽음, 죽음의 기원, 죽음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이해와 상담방법 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sup>5)</sup>

## II. 펴는 글

### 1. 죽음의 정의와 개념

#### 1) 죽음의 정의

인간은 누구도 죽음을 충분히 그리고 분명히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어렵다. 죽음을 체험한 자는 이미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죽음을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관찰하거나 단순

4) Lucy Bregman, *Death in the Midst of Life: Perspectives on Death from Christianity and Depth Psychology* (Grand Rapids: Baker, 1992), 114.

5) 죽음에 대한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죽음학(thanatology)'이라는 하나의 학문을 탄생시켰는데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죽음교육」 Death Education이라는 정기 간행물이 발간될 정도로 이 분야에 괄목할 만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대학에서 교양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죽음학'이 등장한 것은 1950년대이고, 일본 동경대학교에서는 1980년대부터 개설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와서 일부 의과대학에서 개설되었으며 극히 일부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었으나 신학대학에서 이 과목이 개설된 곳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히 주검을 보는 것으로써 이는 극히 피상적인 것이다.

Daniel Callahan은 죽음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인생이 종결될 때, 책임있는 사람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이 사라질 때, 죽음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해치지 않고 실망이나 분노를 느끼게 하지 않을 때, 참을 수 없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고통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를 죽음이라고 했다.<sup>6)</sup> 이 정의는 개념이 모호하여 죽음을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정신의학사전』에 의하면 죽음은 삶, 즉 육체와 정신의 총체적이고 영원한 기능의 중지라고 했다.<sup>7)</sup> 또 미국심리학회에서 출간한 『APA심리학 사전』에 따르면 죽음은 인간의 신체기관에서 육체와 정신 과정의 영원한 중단이라고 정의했다.<sup>8)</sup>

전통적 견해에서 죽음의 정의는 임상적 표식으로 자발적 호흡의 정지와 심장박동의 영원한 정지(permanent arrest of the heart beat)이다.<sup>9)</sup> 이는 삶을 계속 유지시키는 근본적 요소를 피와 호흡이라고 보고 피가 순환되지 않으며 호흡이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본 것이다. 심장과 폐의 기능이 중지되더라도 기관(organ)이나 세포(cellular)는 일정기간 살아 있고 여타 장기의 정지는 신체 내에서 각기 다른 시차를 가지고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적 기능의 정지가 실제로 신체의 죽음(somatic death)이며 전체적 죽음일 것이다.<sup>10)</sup> 대한의학협회의 “죽음 정의 연구위원회”는 죽음을 심장 기능 및 호흡 기능과 뇌 반사의 불가역적 정지 또는 소실이라고 정의했다.<sup>11)</sup> 이 정의는 뇌사

6) Stanley Hauerwas, *Suffering Presenc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1986), 97.

7) Robert J. Campbell, *Campbell's Psychiatric Dictiona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2004), 166.

8) Gary R. VandenBos, *APA Dictionary of Psychology* (Washington, DC.: APA, 2004), 257.

9) John Wilkinson, *Christian Ethics in the Health Care* (Edinburgh: Hangel, 1988), 281.

10) Wilkinson, *Christian Ethics in the Health Care*, 280.

11) 황기석, “죽음의 판정,” 한국가톨릭의사협의회 편, 『의학윤리』 (서울: 수문사, 1984), 267. 의학계에서는 죽음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뇌파측정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호흡이 정지되고 심장이 움직이지 않으며 뇌의 작동이 정지되었을 때를 완전한 죽음

를 추가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려고 하였다.

죽음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생명에서의 이탈, 신체적 삶의 정지라고 말할 수 있으며, 혈액순환의 완전한 정지(total stoppage of the circulation of blood)와 호흡이나 맥박과 같은 생명 기능의 정지로 보고 있다.<sup>12)</sup> 종합해 볼 때 죽음의 시점을 결정짓는 의학적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심폐 기능의 완전한 정지와 아울러 뇌사를 죽음이라고 정의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죽음에 대한 정의가 아니거나, 죽음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렸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물학적 접근이어서, 기독교상담학에서는 죽음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기초 위에 내려진 정의에 근거하여 상담을 해야 할 것이다.

죽음을 이해할 수 없는 미지와 신비라 하여 덮어 둘 수는 없다. 기독교상담 및 목회 현장에서는 항상 죽음의 문제를 접하게 되고, 죽음의 성경적 의미를 상담 및 교육해야 하며, 인간이 겪는 상당수의 문제들은 죽음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기독교상담자는 죽음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해야 한다.

## 2. 죽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

### 1) 죽음의 기원

죽음의 기원은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반역한 아담과 하와의 죄악된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음을 초래했다. 이것은 단지 구약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다. 즉 죽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기보다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야기된 처벌이었다.

창세기 3장 18-19절에는 인간이 필멸적(mortal) 존재가 되었다고 묘사하

---

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죽음의 개념은 (1) 생체적 유동 기능의 불가역적 정지(심장과 폐혈관의 기능 정지), (2) 육체로부터 영혼의 불가역적 이탈(호흡의 기능 정지), (3) 신체적 통합능력의 불가역적 정지(뇌의 기능 정지), (4)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의 불가역적 정지(뇌피질사)라고 이해하고 있다.

12) Harmon L. Smith, *Ethics and New Medicine* (Nashville: Abingdon, 1970), 127.

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타락 이전에는 죽음이라는 용어나 개념 자체가 있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반역하지만 않았어도 인간은 죽음과 무관한 불멸적 (immortal) 존재로서 살았을 것이라는 암시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견해는 초기 교부들도 가졌던 생각이었다.<sup>13)</sup> 하지만 필멸적 존재였느냐, 불멸적 존재였느냐에 대한 신학적 논의는 양론이 대립되어 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인간은 필멸적 존재라는 사실이며,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성경에 명시된대로 최초 인간에게 발생한 죽음은 죄에 대한 처벌이었음에는 틀림없다.<sup>14)</sup> Bailey도 “인간이 필멸적 존재로 변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에서 기인된 것”<sup>15)</sup>이라고 밝혔다.

인간에게 발생한 죽음을 죄의 결과로서 이해하는 것은 보수신학이나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간이 이 땅에 몇 년을 사는가의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며 개인차가 있지만 통상 다윗의 표현대로 70세를 살도록 되어 있고 강건하면 80세를 산다고 불 때(시 90:10)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예기치 않은 죽음을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견해도 나오게 되었다.<sup>16)</sup>

성경은 죽음에 대한 내용만을 담은 책이 아니고, 죽음을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또는 집중적으로 다루어 놓은 것이 아니며, 산발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죽음에 대한 논의는 의학, 철학,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많은 종교들을 통해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으나 각기 그 개념과 이해가 달라 일치된 입장은 발견하기 어렵다. 기독교의 죽음 이해는 성경에 기반이 되어 있으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해를 명백하게 가져야 한다.

13) George P. Fisher,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88), 183.

14) Erwin W. Lutzer, *Coming to Grips with Death and Dying* (Chicago: Moody, 1992), 20.

15) Bailey, *Biblical Perspectives on Death*, 77.

16) Illman, *Old Testament Formula about Death*, 97.

## 2) 성경의 비유를 통한 죽음이해

성경에 죽음을 일목요연하게 또는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을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료 가운데 죽음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가장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성경밖에 없다. John Ankerberg와 John Weldon은 “인간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논할 때 성경 이상의 권위있는 자료는 없다.”<sup>17)</sup>고 말한 것처럼 기독교상담자는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수립하고 죽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Edwin S. Shneidman의 분석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볼 때 “구약성경을 기록했던 히브리 저자들은 신약의 저자들과는 다른 입장에서 죽음을 묘사했는데 비교적 일관성을 가지고 죽음의 개념을 정립하려고 했다.”<sup>18)</sup>고 진술했다. 그런가 하면 Lloyd R. Bailey는 “죽음에 대해서는 일관성이라든지 단일된 개념을 발견하기가 어렵다.”<sup>19)</sup>고 주장했다. Ray S. Anderson도 성경에서 죽음의 신학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했으며, 죽음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도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 단일개념을 정립하기는 용이하지 않다고 주장했다.<sup>20)</sup> 또한 L. Wachter에 따르면 “신, 구약성경에 죽음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더라도 이런 것들은 미지에 속한 것이 많으며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닌 것 같다.”<sup>21)</sup>고 했다. 죽음은 인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죽음의 비유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죽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7) John Ankerberg & John Weldon, *The Faces on Life after Death* (Eugene: Harvest, 1992), 42.

18) Edwin S. Shneidman, *Death: Current Perspectives* (Palo Alto, CA.: Mayfield, 1976), 45-46.

19) Lloyd R. Bailey, *Biblical Perspectives on Death* (Philadelphia: Fortress, 1979), 23.

20) Ray S. Anderson, *Theology, Death and Dying* (Oxford: Basil Blackwell, 1986), 1.

21) Karl J. Illman, *Old Testament Formula about Death* (Slottsgatean, Finland: Publications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ABO Akademi Foundation, 1979), 15.

## (1) 잠자는 것

육체적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한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묘사이다. 성경에 나타난 죽음의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잠을 잔다는 것이다. 잠잔다는 묘사는 죽음의 두려움이 감소된 것이며 소망적 의미가 담겨있다. 잠을 잔다는 것은 깨어날 것을 전제한 표현이기 때문에 죽음의 일시성을 내포한 개념이다. 종국에 모든 인간이 심판을 받기 위하여 깨어날 때까지 소정의 기간동안 취하는 잠이 죽음이다.<sup>22)</sup>

요한복음 11장 11-14절은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에게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고 말함으로써 주변사람들로부터 실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었다. 예수께서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 것은 죽음으로부터 깨어날 것을 전제하신 말씀이다.

사도행전 7장 60절, 8장 1절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는 구절을 통해서 누가도 죽음을 수면으로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울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라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이나,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4절의 표현도 모두 죽음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시대부터 있어 온 것인데 시편 13편 3절에 보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라고 죽음을 잠으로 설명하였다.

신,구약성경에서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것은 죽음이 두렵거나,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 주면서 일시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다.<sup>23)</sup> 낮동안 여러 가지 활동으로 피로에 지친 몸이 잠을 통해서 안식하고 다음날 새롭

22) David G. Benner, *Care of Souls: Revisioning Christian Nurture and Counsel* (Grand Rapids: Baker, 1998), 22.

23) Michael G. Wensing, *Death and Destiny in the Bible*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1993), 26.

게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죽음은 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이다.

죽음을 잠으로 비유한 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영혼 가면설(靈魂 假眠說)' 즉 영혼의 소멸을 뜻하면서 지옥의 실재를 부인하는 교리와는 다른 것임에 주의해야 한다.<sup>24)</sup>

(2) 물을 땅에 쏟는 것

죽음에 대한 비유 가운데 '물을 땅에 쏟는 것'이라는 것은 독특한 표현이다. 사무엘하 14장 14절에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라는 구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물을 땅에 쏟아버리면 다시 그것을 모으지 못함과 같이 죽음의 불가역성을 나타냈다. 인간은 한 번 죽게 되면 그 영혼이 어디론가 스며들어 가버리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무기력과 아울러 불가역적 개념을 표현한 것이다.

(3) 흠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나라에서도 죽음에 대한 전통적인 표현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는 완곡어법이면서도 죽음에 대한 정확한 묘사이다. 이것은 인간이 본래 비롯된 곳으로 귀향하는 뜻이 담긴 말이다. 성경적으로 볼 때 '돌아가다'는 죽음 묘사는 인간이 본디 흠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육체가 썩어 그 지음받은 본래 소재인 흠으로 다시 돌아가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현은 창세기 3장 19절을 비롯하여 욥기 10장 9절에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흠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욥기 34장 15절에도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전

24) Loraine Boettner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할 때까지 몸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몸이 무의식적이고 무감각적인 상태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잠은 육체적 수면이지 영혼의 수면이 아니다. 영혼 가면설을 가르치는 자들은 이 육체적 수면과 영혼의 수면을 혼동한 것이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영혼 가면설을 가르치지 않았다. 죽은 자들과 관련하여 '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모든 예에서 나타난 그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은 단지 육체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Peter Jeffery, *Sickness and Death in the Christian Family* (Durham, England: Evangelical, 1993), 45.

12:7) 시편 90편 3절에도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에 나타난 표현은 모두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다.

#### (4) 조상(열조)에게 돌아가는 것

인간이 흠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흠으로 돌아가는 것도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 조상(열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역시 죽음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이제껏 죽은 자들과의 공동체 의식으로부터 나온 묘사이다.

창세기 5장 29절, 15장 15절, 25장 8절 등에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에 대한 구절이 나타나 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둔”(창 47:30, 왕상 2:10), 창세기 49장 29절에 “...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는 표현도 죽음을 통한 공동체성을 드러낸 생각이다. 이와 유사한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에도 언급된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이러한 표현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한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구입했다는 창세기 23장에서 묘사된 것처럼 일반적으로 가족 장례에 강조를 둔 표현이다. 야곱이 죽을 때에 아들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말씀은 죽음을 끝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새롭게 시작될 열조들과의 생활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동시에 이 땅에 남겨진 자와의 이별로 인해 발생하는 외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표현이다.

죽음을 ‘잔다’고 한 표현은 구약에서 시작되어 신약에서도 사용된 반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표현은 그 개념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표현은 없어지게 되었다.

#### (5) 기타

이 밖에도 성경은 죽음을 일컬어 ‘낙원으로 가는 것’(눅 23:43),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요 14:2)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이 땅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는 것이며, 어디론가 좋은 곳으로 가는 것 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 3) 구약의 죽음

구약 전체를 분석해 볼 때, 죽음에 대한 통일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sup>25)</sup> 구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주권으로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통제불능한 세력이다.

창세기에 의하면 모든 생명체는 일시적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사야 40장 6-7절에 따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붉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라고 했다. 여기서 인간의 생명은 화려한 정점을 맞게 되지만 점차 시들어 가서 그것이 말라 버릴 때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구약시대에는 육체가 존재하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 90:10)라는 구절은 육체의 연수의 한계를 설명한 구절이다. 사후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이 부활하게 된다는 내용의 언급이 구약에도 나타나 있다. 이사야 26장 19절과 다니엘 12장 2절이 바로 그것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두 구절은 육체적 부활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모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부활될 것이라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된다.<sup>26)</sup>

25) Bailey, *Biblical Perspectives on Death*, 23.

26) Shneidman, *Death*, 38-39.

#### 4) 신약의 죽음

신약에 나타난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는 구약에 나타난 그것에 비하여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구약의 사상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약에서 죄와 필멸성 사이의 인과관계는 좀 더 명백하게 언급되어 있다. 죽음에 관하여 신약에 나타난 독특한 개념은 내세에 대한 기대이다. 신약에 있어서 필멸성은 삶의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복음서는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눅 13:1-3)는 구절을 통해서 볼 때, 요절이나 예기치 않았던 죽음과 불운의 비극성이 그의 개인적인 범죄함에 기인한다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저하시키는 것 같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었나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요 9:2-3)는 구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신약의 죽음이해는 예수의 죽음과 연결하지 않고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예수의 죽음 이전까지 죽음에 대한 입장은 구약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여 죄의 결과로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신약은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원인을 죄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속했고, 죽음으로부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간에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

특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죽음은 죽음 자체보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예수의 부활을 예견해 보인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5-26)라는 구절을 통해서 인간이 필멸적 존재로부터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의 전환을 설명했다.

바울은 죽음을 적으로 인식했으나(고전 15:26),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도

말하시는 제물이었음을 고백하고 적을 정복하듯 죽음을 정복했다는 신앙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다(고전 11:24-25). 죽음과 관련한 바울 신앙의 요점은 '첫째 아담'이 세상에 죽음을 초래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여 인간에게 절망을 안겨준 반면, '둘째 아담'인 예수는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여 인간에게 소망을 안겨주었다는 것이다(고전 15:20-25). 바울은 이러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일련의 독특한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이 불가분리의 관계를 갖는다고 확신했다. 죽음이 한편으로 절망인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은 절망에 초점을 두지 않고, 죽음을 삶의 연속적 과정으로 이해했다. 그 이유는 사후 세계에 대한 소망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울의 죽음관은 시종 천국의 소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 5) 죽음 후의 삶

죽음 후에 인간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극히 자연스러운 질문이지만 인간에게 가장 혼란을 주어왔던 질문 가운데 하나이다.<sup>27)</sup> 죽음에 관한 질문은 대체로 사후 세계에 관한 질문과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누구도 이를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에게 상당히 난해한 질문이다. 대개 이런 문제는 종교 이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과학에서는 죽음 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다루지 않는 입장이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나름대로 죽음에 대하여 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sup>28)</sup>

삶과 죽음,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의존할만한 유일한 자료는 성경 외에는 없으므로 가장 권위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sup>29)</sup>

27) Page, *Life after Death*, 15.

28) Michael R. Leming & George E. Dickinson, *Understanding Dying, Death & Bereavement* (Philadelphia: Holt, Rinehart & Winston, 1985), 123.

29) Raymond A. Moody, *Life after Life: The Investigation of a Phenomenon—Survival of Bodily Death* (Harrisburg, PA.: Stackpole Books, 1976), 101.

죽음이 인간에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 사고이다. 대부분 자살을 생각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삶만을 생각하고 죽음을 끝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죽음은 인간에게 종착지가 아니며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진보주의적 신학자로서 Jürgen Moltmann이나 Wolfhart Pannenberg까지도 예수의 복음이란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래, 즉 사후 세계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sup>30)</sup> 물론 이 진술이 전적으로 옳은가 하는 신학적 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의 현대신학자로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것은 관심있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신 것을 통해 전체 인간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신, 구약성경에 나타난 죽음관과 부활, 사후 세계에 대한 언급이 다소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죽은 자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를 통한 그 약속이 해답이 될 수 있다.

또한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영벌의 은유로서 '영원한 불못'(계 20:15)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종종 지옥(hell)으로 번역되는 음부(hades)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으로 이해된다. 그곳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원한 처벌의 장소이다.

### 3. 죽음에 대한 기독교상담

#### 1) 금기 제거

죽음은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떨려버리기 어려운 불안임에 틀림없다. Kurt F. Reinhardt가 말한 대로 죽음은 인간이 존재하는 그 어느 곳이나 모든 상황에서 그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며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

---

30) Monika Hellwig, *What Are They Saying about Death and Christian Hope?* (New York: Paulist, 1978), 1.

고 말한대로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이다.<sup>31)</sup>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세력이며 비극적 현실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상담 현장에서 죽음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는 심각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기독교상담에서 죽음이해는 죽음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반드시 부활 사상과 함께 이해해야만 한다. 기독교교리 자체가 죽음과 사후 세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기독교상담자는 항상 이것을 다룰 수밖에 없다. 아울러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죽음을 미리 인식하고 현세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죽음을 미리 인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인간은 죽음과 그것의 절대적 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논의를 금기시하거나 완곡어법을 사용하여 직접 다루는 것을 회피해 왔다.

기독교상담자는 죽음에 직면해 있거나 죽음의 문제를 겪는 내담자를 올바르게 위로, 상담해 주기 위해서 먼저 죽음에 대해 분명한 견해를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개 죽음의 문제(death & dying)를 상담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죽음의 주제가 금기시 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 필연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건전한 논의조차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침묵은 두려움의 발로로서 상담자는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실존적 불안을 떨쳐버리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담자는 죽음에 대한 금기를 깨고 상담자와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죽음상담에서는 상담자가 죽음에 직면해 있거나 죽음의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내담자의 말을 잘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근본적인 인간 실존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삶의 불확실성과 죽음의 확실성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예외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개념은 죽음불안,

31) Kult F. Reinhardt, *The Existentialist Revolt* (New York: Frederick Unger, 1960), 138.

죽음공포, 죽음혐오, 죽음기피, 죽음부정 및 죽음분노 등이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심리학적 개념으로 불안과 공포는 다소 명백하게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죽음불안(death anxiety)과 죽음공포(fear of death, thanatophobia) 간에는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는 개념이다.<sup>32)</sup> 아울러 죽음 혐오와 죽음기피, 죽음부정 및 죽음분노 간에도 뚜렷하게 구별할만한 근거는 없는 것 같다. 다만 광범위하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심리상태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 2) 죽음불안의 원인과 해소

Hannelore Wass는 죽음불안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네 가지 형태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1) 죽어가는 불안: 이것은 신체적으로 경험하는 생물학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의 과정이다. 사회적 고통이란 죽어감으로써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되거나 수치심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죽어가면서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신체적-정신적 역할과 기능 상실, 고독, 고통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 죽음에 대한 불안: 자기 존재가 소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하여 극도의 자기 상실에서 오는 불안을 의미한다. (3) 죽음의 결과에 대한 불안: 이것은 죽음 후에 무엇이 발생할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을 포함하여, 지옥에 대한 공포와 처벌에 대한 불안이 여기에 해당되며, 또 죽은 후에 개인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계획, 사업, 재산에 대한 염려, 아쉬움 등까지도 포함된다. (4)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한 불안: 다른 사람과 분리됨으로써 느끼는 슬픔과 고독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을 느끼는 감정이 포함된다.<sup>33)</sup>

죽음불안과 죽어가는 과정의 불안에 대해서는 여덟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1) 의존성의 불안: 이것은 그 동안 의존했던 것들이 도움이 되지 못하

32) Larry Michelson & L. Michael Ascher, eds., *Anxiety and Stress Disorders: Cognitive Behavioral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Guilford, 1987), 425.

33) Hannelore Wass, *Dying Facing the Facts* (Washington: Hemisphere, 1979), 121.

는데서 오는 불안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어린아이의 경우, 부모를 의지하지만 부모는 그를 도울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때 더욱 불안에 놓이게 될 것이다. 성인의 경우 죽음 앞에서 명예나 돈을 의지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의사나 의학을 의지하지만 그것도 결국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되므로 이런 것에서 사람은 불안을 느낄 수 있다. (2) 죽어가는 과정에서 고통의 불안 (3) 죽어가는 과정에서 냉대의 불안 (4) 죽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고독과 분리, 거부의 불안 (5)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하는 불안, 남겨 두어야 하는 불안 (6) 죽음 후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 이 내용에 대해서는 Kathy Charmaz도 주장하기를 죽음 후에 무엇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은 더욱 가중된다고 그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sup>34)</sup> (7) 죽음의 형벌에 대한 불안: 이것은 그 동안 지내 온 자신의 삶에서 죄와 연관된 잘못된 행위들에 대한 형벌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원초적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Margaretta K. Bowers도 영적 차원에서 인간은 사후의 심판에 대하여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곧 죽음불안과 연결된다고 보았다.<sup>35)</sup> (8) 육체의 소멸에 대한 불안: 결국 인간이 죽으면 땅 속에 파묻히게 되어 흙으로 소멸되어 버리는 자신의 육체 또는 화장되어 한 줌의 재로 변할 자신의 육체를 생각할 때 강한 불안이 엄습해 올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엄밀하게 분석해 보면 인간이 느끼는 죽음불안은 죽음 그 자체보다는 죽음의 과정과 다른 사람의 죽음을 관찰함으로써 얻어지는 불안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다.<sup>36)</sup> 노인의 경우에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고, 다음으로 타인의 죽음에 대한 공포, 타인의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 순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더라도 사람들은 죽음 그 자체의 두려움보다 더 큰 불안과 공포는 죽음을 지켜보는 두

34) Kathy Charmaz, *The Social Reality of Death* (Menlo Park, CA.: Addison-Wesley, 1980), 84.

35) Margaretta K. Bowers, *Counseling the Dying* (Grand Rapids: Harper & Row, 1981), 10.

36) Charmaz, *The Social Reality of Death*, 84.

려움과 죽어가는 불안이다.<sup>37)</sup>

기독교상담에서 볼 때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원인은 죄와 죄책감이다. Jay E. Adams는 모든 기독교상담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sup>38)</sup> 그는 죽음불안에 있어서도 예외로 생각하지 않았다. 불안의 이유를 죄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되는 불안을 극복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Duncan Buchanan도 Adams와 유사하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결정적 이유는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sup>39)</sup>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생에서의 죄로 인해 막연한 지옥의 형벌에 대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 죽음이라는 동일한 문제를 당한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죄의 문제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즉 기독교신자의 경우에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해소된 것이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심은 감소될 수 있다.

### 3) 확고한 내세관 형성

죽음상담에 있어서 상담자는 단순히 임기응변적으로 내담자에게 평안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되며 신학적, 성경적으로 명백한 죽음관과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죽음불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괄목할만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연구했다고 하여 죽음을 정복하거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sup>40)</sup> 죽음과 관련된 상담을 할 때 기독교상담자 자신이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상담자는 내담자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위로, 상담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일반상담 및 심리치료자들은

37) Wass, *Dying Facing the Facts*, 27.

38) Jay E. Adams, *More Than Redemption* (Phillipburg, NJ.: Presbyterian & Reformed, 1979), 87.

39) Duncan Buchanan, *The Counseling of Jesu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5), 74.

40) Elisabeth Kubler-Ross, *On Death and Dying* (New York: MacMillan, 1969), 5.

내담자에게 죽음에 대한 진정한 답변을 줄 수도 없으며, 상담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의학적으로 죽음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유기체적이며 생물학적이다. 그러나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의 육체적 죽음에도 관여하지만 생물학적 소멸과 심리적 단절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상담자는 죽음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내담자에게 죽음으로 인해 단절, 파괴되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기독교상담에서는 죽음에 대한 인식의 재구성과 재해석이 필요할 뿐이다. 그것은 내담자의 사후 세계와 심판에 대한 신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용서와 회개 등으로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죽음과 관련한 성경적 견해를 분명히 해야 한다. 기독교상담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삶을 더욱 의미있게 보내기 위한 것이다.

H. Norman Wright는 죽음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41)</sup> Marvin G. Gilbert와 Raymond T. Brock의 연구에서도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 버릴 수는 없다고 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죽음에 대한 불안이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더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sup>42)</sup> Kevin J. Flannelly, Harold G. Koenig, Christopher G. Ellison, Kathleen Galek, 및 Harold G. Koenig의 연구에 따르면 신앙이 죽음에 대한 불안 정도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불안, 우울, 강박관념(행동), 편집증, 공포증 그리고 다양한 신체화(saomatization) 증상 등이 현저히 낮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41) H. Norman Wright, *Crisis Counseling* (San Bernardino, CA.: Here's Life, 1985), 118.

42) Marvin G. Gilbert & Raymond T. Brock, eds., *The Holy Spirit and Counseling* (Peabody, MA.: Hendrickson, 1988), 155. cf. Kevin J. Flannelly, Harold G. Koenig, Christopher G. Ellison, Kathleen Galek, & N. Krause, "Belief in Life after death and Mental Health: Findings from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4, no. 7 (2006): 524-29.

밝혔다.<sup>43)</sup> 여기서 내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라는 의미는 내세에 대한 다섯 가지 유쾌한 신념(pleasant beliefs)이라고 정의했는데 그 유쾌한 신념에는 사후에 하나님과의 연합,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합, 평화롭고 평안한 삶, 밝고 명량한 천국, 영원한 보상의 삶 등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기독교신자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보다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기독교의 내세관이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사후 세계를 기대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Henri J. M. Nouwen은 죽음을 두 번째 출생 순간이라고 이해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음을 위해 뭔가 준비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이 세상에 더욱 오래 살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Nouwen은 죽음을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새로운 세계에 두 번째로 출생하는 과정이라고 믿었다.<sup>44)</sup> 이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삶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으며, 죽음을 두 번째 출생으로 이해할 때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해소할 수 있다.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신과 소망은 사후에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Douglas J. Davies는 삶과 죽음의 밀접성을 일컬어 삶이 죽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죽음이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에 있음을 밝혔다.<sup>45)</sup>

근래 급증하는 자살문제를 비롯하여 모든 범죄는 사후 세계(보상 및 심판)에 대한 희박한 인식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각자의 정의와 개념, 신념,

43) Kevin J. Flannelly, Harold G. Koenig, Christopher G. Ellison, Kathleen Galek, & Harold G. Koenig, "Beliefs about Life-after Death, Psychiatric Symptomology and Cognitive Theories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6, no. 2 (2008): 94-103.

44) Henri J. M. Nouwen, *Beyond the Mirror: Reflections on Death and Life* (New York: Crossroad, 2002), 93.

45) Douglas J. Davies, *The Theology of Death* (New York: T & T Clark, 2008), 152.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상담자는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인식이 있어야 하며 내담자에게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상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확고히 할 때 현세의 삶은 더욱 진지해 질 수 있으며, 현세 삶의 고난과 고통을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다.

#### 4) 죽음에 대한 인격적 태도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위기의 순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불안과 공포)으로부터 벗어나 죽음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삶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다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죽음을 '인격적 경험'으로 이해하고 맞이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인격적 경험'이란 죽음에 대하여 반항하는 태도가 아니라, 죽음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내세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갖고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를 의미한다.<sup>46)</sup> 기독교상담자는 죽음에 직면해 있거나 죽음의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내담자에게 인격적 죽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죽음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죽음으로 끌려간다는 피동적 접근 인식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인격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죽음이 인간에게 현실적 위협과 분리로 인한 아쉬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사후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5)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바울처럼 상담자는 죽음에 대하여 초연한 태도를 갖아야 하며, 내담자에게도 그렇게 상담해야 한다.

46) Erik Erikson,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2), 14-15.

### III. 닫는 글

현대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인간에게는 없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누구나 직면해야 할 가장 분명한 사실이며, 사건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의 의식 또는 무의식 속에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이것을 해결해 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죽음은 육체적 기능의 불가역적 정지이므로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러한 사고를 갖게 되면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고, 현세에 대한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강조하기 어렵게 된다. 즉 내세가 없다면 기독교신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고전 15:19). 기독교상담자는 사후 세계를 염두에 두고 그 관문으로서 죽음을 이해해야 하며 그에 따라 내담자로 하여금 성실한 현세를 살도록 하는 자가 기독교상담자이다. 기독교상담자는 죽음에 직면해 있거나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빠져있는 내담자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해주는 자이어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의미있는 삶, 바른 삶을 살도록 해야 하며, 사후 세계와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인식시켜주고 그것을 소유 또는 확인하는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독교상담은 죽음을 절망으로 이해하거나 종착역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상담자는 죽음이 남겨놓을 허무, 아쉬움, 슬픔 등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자여야 하며, 그러한 태도로 내담자의 문제를 극복시켜야 한다. 이는 기독교상담의 독특성을 드러낸 것으로서 일반상담은 종교가 아니므로 근본적으로 죽음상담을 해낼 수가 없다.

Robert Carrigan은 기독교상담에서 소망의 역동적 역할에 대해 강조하면서 “상담자로부터 소망에 대해서 강조받지 못하는 상담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담”<sup>47)</sup>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가 죽음 앞에서도 당

47) Robert L. Carrigan, “Where Has Hope Gone? toward an Understanding of Hope in Pastoral Care,” *Pastoral Psychology* 25, no. 1 (fall 1976): 39.

당하고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방식을 확립해주어야 하고, 미래의 소망적 신앙으로 현재의 절망적 상황을 이겨 나가도록 해야 하며, 죽음을 맞이할 때 인격적으로 맞이하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는 현세적 측면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루는 내세종교이다. 죽음과 부활, 사후 심판,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소망적으로 맞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이를 점검하는 것은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 【 참고문헌 】

- 황기석. “죽음의 판정.” 한국가톨릭의사협의회 편. 『의학 윤리』. 서울: 수문사, 1984.
- Adams, Jay E. *More Than Redemption: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Phillipburg, NJ.: Presbyterian & Reformed, 1979.
- Anderson, J. Kerby. *Life, Death and Beyond*. Grand Rapids: Zondervan, 1980.
- Anderson, Ray S. *Theology, Death and Dying*. Oxford: Basil Blackwell, 1986.
- Ankerberg, John & Weldon, John. *The Faces on Life after Death*. Eugene: Harvest, 1992.
- Bailey, Lloyd R. *Biblical Perspectives on Death*. Philadelphia: Fortress, 1979.
- Benner, David G. *Care of Souls: Revisioning Christian Nurture and Counsel*. Grand Rapids: Baker, 1998.
- Bowers, Margaretta K. *Counseling the Dying*. Grand Rapids: Harper & Row, 1981.
- Bregman, Lucy. *Death in the Midst of Life: Perspectives on Death from Christianity and Depth Psychology*. Grand Rapids: Baker, 1992.
- Buchanan, Duncan. *The Counseling of Jesu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5.
- Campbell, Robert J. *Campbell's Psychiatric Dictiona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2004.

- Carrigan, Robert L. "Where Has Hope Gone? toward an Understanding of Hope in Pastoral Care." *Pastoral Psychology* 25, no. 1 (fall 1976): 39.
- Charmaz, Kathy. *The Social Reality of Death: Death in Contemporary America*. Menlo Park, CA.: Addison-Wesley, 1980.
- Davies, Douglas J. *The Theology of Death*. New York: T & T Clark, 2008.
- Erikson, Erik.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2.
- Fisher, George P.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88.
- Flannelly, Kevin J., Koenig, Ellison, Christopher G., Galek, Kathleen, & Krause, Harold G. "Belief in Life after death and Mental Health: Findings from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4, no. 7 (2006): 524-529.
- Flannelly, Kevin J. Koenig, Harold G. Ellison, Christopher G. Galek, Kathleen & Koenig, Harold G. "Beliefs about Life-after Death, Psychiatric Symptomology and Cognitive Theories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6, no. 2 (2008): 94-103.
- Gilbert, Marvin G. & Brock, Raymond T. eds., *The Holy Spirit and Counseling*. Peabody, MA.: Hendrickson, 1988.
- Hauerwas, Stanley. *Suffering Presenc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1986.
- Hellwig, Monika. *What Are They Saying about Death & Christian Hope?* New York: Paulist, 1978.
- Illman, Karl J. *Old Testament Formula about Death*. Slottsgatean, Finland: Publications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ABO Akademi Foundation, 1979.
- Jeffery, Peter. *Sickness and Death in the Christian Family*. Durham, England: Evangelical, 1993.
- Kubler-Ross, Elisabeth. *On Death and Dying*. New York: MacMillan, 1969.
- Kubler-Ross, Elisabeth. *Death: The Final Stage of Growth*. New York: A Touchstone, 1975.
- Leming, Michael R. and Dickinson, George E. *Understanding Dying, Death,*

- and Bereavement*. Philadelphia: Holt, Rinehart & Winston, 1985.
- Lutzer, Erwin W. *Coming to Grips with Death and Dying*. Chicago: Moody, 1992.
- Michelson, Larry & L. Michael Ascher, eds., *Anxiety and Stress Disorders: Cognitive Behavioral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Guilford, 1987.
- Moody, Raymond A. *Life after Life: The Investigation of A Phenomenon—Survival of Bodily Death*. Harrisburg, PA.: Stackpole Books, 1976.
- Nouwen, Henri J. M. *Beyond the Mirror: Reflections on Death and Life*. New York: Crossroad, 2002.
- Page, Allen F. *Life after Death: What the Bible Says*. Nashville: Abingdon, 1987.
- Reinhardt, Kurt F. *The Existentialist Revolt*. New York: Frederick Unger, 1960.
- Shneidman, Edwin S. *Death: Current Perspectives*. Palo Alto, CA.: Mayfield, 1976.
- Smith, Harmon L. *Ethics and New Medicine*. Nashville: Abingdon, 1970.
- VandenBos, Gary R. *APA Dictionary of Psychology*. Washington, DC.: APA, 2004.
- Wass, Hannelore. *Dying Facing the Facts*. Washington: Hemisphere, 1979.
- Wensing, Michael G. *Death and Destiny in the Bible*. Collegewill, PA.: Liturgical, 1993.
- Wilkinson, John. *Christian Ethics in the Health Care*. Edinburgh: Hangel, 1988.
- Wright, H. Norman. *Crisis Counseling*. San Bernardino, CA.: Here's Life, 1985.

【 Abstract 】

Effective Counseling on Death & Dying in Christian Counseling:  
Centering around Biblical & Theological Foundation

Joseph Jeon  
Sungkyul University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effective counseling on death & dying in Christian counseling. According to the Genesis of the old testament, death came from human's transgression. A question on death & dying is a foundational question and ultimate asking for humans' existence. Also, death is painful, threatening, and powerful being. So human being is making resistance to avoid death by a lot of medical treatments or methods. Human being, however, is mortal being. In Christian counseling, a counselor ought to make confrontation with death for a client. A Christian counselor has to check whether a client has belief on the Kingdom of heaven beyond death or not. Also, a Christian counselor's role is to give desire for the hopeful future: the Kingdom of heaven to a client. Generally, eschatology in systematic theology and/or biblical theology have dealt with discussion on death. Eschatology contains things of future, judgement, reward, the Kingdom of heaven, hell, ect.

Christian counseling must deal with that what the Bible says on death & dying. Accordingly, this research handled necessity of research for death & dying, definition and notion of death, origin of death, understanding on death through metaphor in the Bible, and counseling methods on death & dying.

In conclusion, the researcher emphasized that a Christian counselor ought more to deal with confidence on salvation and the Kingdom of God through Christ to a client than to avoid death anxiety or thanatophobia to a client. Also, a Christian counselor does not focus on the isolation, nihility, sadness, and regret of a client in due to death. First of all, a Christian counselor has to get a confidence on salvation and the Kingdom of heaven in order to do counseling effectively. The reason to study death in advance is to live meaning life in this world. To deal with cognition on death biblically is essential of Christian counseling.

**Key words:** death & dying, death counseling, death anxiety, Christian counseling, death ministry